

길림오동 2023 년도 중국중약기업 100 강에 입선



2024년 6월 25일, ‘2023년도 중국약공업 백강 계열 순위’가 호주에서 발표되었는데 길림오동약업그룹주식유한회사(이하 ‘길림오동’)가 ‘2023년도 중국중약기업 TOP 100 순위’에 입선, 33위를 차지한 가운데 2022년 순위보다 12위 더 올라갔다.

‘중국의약공업 백강 계열 순위’는 미네(米内) 연구원이 의약공업기업의 혁신구동력과 전문보급력 두가지 큰 방면에서 미네넷에서 단독으로 수집한 3대 단말 6대 시장 데이터와 결부해 심층적이고도 상세한 정량 분석을 진행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선정한 것이다. 순위에 오른 기업은 모두 중국 의약공업의 선두자와 본보기이다.

이번 순위 선정은 국내 의약공업기업의 종합 실력을 제고하고 브랜드 효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보기를 수립하며 의약 브랜드 공업의 뛰어난 풍채를 전시하고 의약간강업종의 안정적인고 패속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길림오동은 2023년도 중국중약기업 백강 순위에 입선되었는데 이는 실력, 품질, 소비자의 인정을 대표한다. 2023년, 회사는 업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난관을 공략하며 개혁 혁신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의약 + 금융 + 대건강’ 다룬 구동 발전 모식을 견지하고 정밀

화 관리를 전면 추진하면서 의약 주업 발전을 가속화했다.

향후 회사는 부단히 ‘중성약, 중약처방과립, 중약제’ 3대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상하류 산업사슬을 관통시키며 협동합력을 형성해 중약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화학약품의 혁신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배치를 다원화하며 품종 혁신으로 시장 확장을 촉진하고 전반 경로, 다원화 판매 모식을 적극 탐색하며 부단히 새로운 시장의 증가량을 발굴하고 화학약품 업무의 안정적인 반등을 힘써 실현한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와 신형 디지털 전자상거래 생방송 모식을 결부하여 대건강 업무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을 일층 시달하고 온라인 경로 판매량을 제고시키며 ‘온라인 + 오프라인’ 런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경로 판매 모식을 승격시켜 대건강 업무의 패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오동급도’ 중국 유명 상표, ‘중화 전통브랜드’ 우세에 의탁해 약품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품질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핵심 대품종군, 중점 품종군, 잠재력 품종군의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발굴하면서 과학기술혁신, 지능제조 등 기술 우세를 갖춘 의약산업그룹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 연변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연길 장백산서로 부분적 구간 교통 회복

연길시에서는 우수오수분류공사를 단계적으로 마친 도로를 률속 복구하고 있다.

26일, 장백산서로 공상은행아빠트단지 남쪽 구간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는 일꾼들이 한쪽으로는 송풍기를 들고 도로의 먼지를 제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스팔트를 깔고 있었다.

현장 책임자는 “해당 구간에서 50여일간 진행된 연길 우수오수분류공사에는 오늘 마무리된다. 지금 모든 일꾼들을 동원해 마지막 단계인 도로 청소 및 아스팔트 부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료해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당일 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400 메

터가량의 아스팔트 부설 공사를 마치게 되면 기존의 왕복 6차선 도로를 회복하게 되고 시공으로 인한 차량 통행 제한이 풀리면서 교통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과장 김효봉은 “현재 광명거리, 인민로, 조양거리 등 12개 거리에 도합 12.3킬로메터의 우수, 오수 도관망을 부설했다. 7월 5일까지 장백산로, 광명거리, 조양거리, 인민로, 진학소학교 남측, 국자거리, 영춘거리, 애단로, 연대거리, 리화로, 우의로 등 11개 공사 구간에서 도합 4.5킬로메터 도로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 연변일보

48 시간 이내 도착... 산서—광둥 복합운송 열차 개통



산서성 중정물류단지에서 발차하는 산서—광둥 복합운송 열차

산서성의 복합운송 열차가 물류 채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얼마전 흑식초(老陈醋) 등 산서성 특산품을 가득 실은 산서—광둥 복합운송 열차가 중정(中鼎) 물류단지에서 발차하여 48시간 만에 광주제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내륙지역인 산서성에서 광둥—항항—오문 대만구(광둥—항항—오문 경제권)를 직통하는 빠른 물류 통로가 하나 더 늘었다.

40FT(피트) 컨테이너 30대로 구성된 해당 복합운송 열차에는 청서현의 흑식초, 치현의 유리식기 등 산서성 핵심 특산품이 적재되었다.

이번 물류 신통로의 개통은 ‘핵심도시 + 현대물류 + 통관무역 편리화’ 모델을 통해 산업, 무역, 물류 융합 발전을 추진하려는 국가철도그룹(중국철도) 태원국그룹과 산서성교통운수청의 새로운 시도

로 평가된다. 이는 현지 핵심 도시의 역량을 꾸준히 확대 및 강화하고 중부지역 우세 상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태원국그룹 철도물류센터 직원 은 해당 산서—광둥 복합운송 열차의 화물 운송 시효에 대한 그룹의 높은 요구 사항을 고려해 운송 방안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차에 ‘포인트—투—포인트’ 직통 모델을 도입해 2,200킬로메터 이상의 거리를 48시간내에 주파함으로써 운행 시간을 단축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일반 화물열차보다 60% 이상 빠른 속도다.

한편 산서—광둥 복합운송 열차는 주 2회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 신화사

연길, 대학생 상대로 500 만원 소비쿠폰 방출

연길시상무국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합 500만원의 소비쿠폰을 방출하게 된다. 이번 소비쿠폰 방출 활동은 여름방학 관광 황금기를 다잡고 ‘청년 연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학생 여름방학 여행은 바로 연길에서’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학

생들의 소비 체험을 풍부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소비쿠폰은 도합 9회에 걸쳐 방출되는데 구체적인 수령시간은 행사 기간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일요일 23시까지이며 수령한 소비쿠폰은 연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문대학, 본과, 석사, 박사, 재직

연구생을 비롯한 전국 재학생 및 신입생들은 알리페이의 ‘즉시 할인’(码上优惠) 응용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대학생 여름방학 여행은 연길에서’의 활동 화면에서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활동에서 료식업, 백화 및 슈퍼마켓, 약품, 풍경구 등 4가지 류형의 쿠폰을 방출하며 료식업, 백화 및

슈퍼마켓, 약품의 소비쿠폰은 200원 어치 소비 시 30원 할인, 100원 어치 소비 시 15원 할인, 50원 어치 소비 시 10원 할인이 가능하고 풍경구 소비쿠폰은 100원 어치 소비 시 15원 할인, 50원 어치 소비 시 10원 할인, 10원 어치 소비 시 5원 할인이 가능하다.

/ 김영화기자

도문시정수장 대상 올해말 준공 예정

도문시정수장 대상건설이 올해 3월 재개된 이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일전, 월청진 안산촌에 위치한 대상건설현장에서는 80여명의 시공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시공중이었다. 이 대상의 부지면적은 7만평방메터

이고 정수공장구역 건축면적은 6,530평방메터에 달한다. 총 투자액이 2억 2,554만원에 달하는 이 대상은 정화실, 업무용 사무실, 슬러지 탈수실, 종합뿔프릴 등 4대 기능 구역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 주체공사 및 철근공크리트 담벽, 내부 도로를 기본적으로 완공하고 이미 상수도 도관 400메터,

오수 도관 1,100메터를 부설했다.

홍물도시건설그룹유한회사 대상경리인 손선군은 “지난해 주체공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올해 주로 외벽공사, 외부 설비 설치, 배관 부설을 완수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70% 진척되었다.”고 소개했다.

현재 시공일꾼들은 건물 외벽 보은

및 외부 설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내부 설비 설치와 공장 진입도로 포장 및 록화 작업을 하게 된다.

도문시수리국 부국장 석강은 “이 대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도시정수 제1공장의 기능을 대체해 도시공간을 더욱 방출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 도문융합미디어중심

연변, 길림성 변경지역 제품 전시회 참가



등 ‘연변의 좋은 제품’들을 아낌없이 선보였다.

오후 3시경, 조선족 전통복장을 차려입은 ‘동북화라거’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신나는 노래가락으로 흥을 띄우면서 생방송 판매를 시작했다. 그들은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가 및 네티즌들과 적극 호응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는데 틱톡 플랫폼의 관객수가 연인수로 26만에 달했고 2시간 동안 1만건이 넘는 주문량을 실현했다.

최근년간 연변의 상무 분야는 ‘연변의 좋은 제품’ 브랜드와 공급사슬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상거래를 리용해 연변의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전 주적으로 870여개의 전자상거래 봉사 거점과 59개의 총급 전자상거래 생방송물을 보유하고 있고 주내 5개 변경촌이 길림성 신전자상거래산업 ‘홍변부민’ 시범촌에 입선되었다. 그리고 ‘연변의 좋은 제품 추천관’(推荐官) 및 주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마을 방송’, ‘가게 방송’, ‘풍경구 방송’ 등 방식으로 연변의 농특산물에 대한 도합 2만여회차의 생방송 판매를 진행했다.

한편, 1월부터 5월까지 전 주 농촌 온라인 판매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31% 증가한 67.29억원을 달성하면서 전 성 1위를 차지했다.

/ 연변일보

6월 27일, 길림성총공회에서 주관한 길림성 변경지역 제품 전시회가 룡정에서 열렸다. 연변조선족자치주상무국은 연변의 16개 기업을 이끌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 ‘동북화라거’(东北划拉哥)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이 생방송 판매를 통해 ‘연변의 좋은 제품’을 전국에 더 널리 알렸다.

오후 1시경, 전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참가자들이 서서히 물려들기 시작했다. 고객들은 전시회 입구부터 풍겨오는 고기 굽는 냄새에 이끌려 우리향소 전시부스 앞에 모여 소고기뿔을 시식했고 “오늘 전시된 제품 전부가 출고 가격”이라는 말에 큰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어제꼈다.

이번 전시회에 연변우리향소(延边牛犊肉业), 왕청도원목이버섯, 돈화시장유식품, 연변홍봉식품, 연변금강산식품 등 기업들이 참가해 소고기, 목이버섯, 전병, 막걸리, 명태

북경, 주택 구매 새 정책 발표

6월 26일,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북경시분행 등 여러 부문은〈본시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 정책조치를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 최저 선불금 비중과 리를 하한선을 조정하고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 최저 선불금 비중을 조정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하고 친환경 건축 등 주택을 구매하는 공격적 대출 한도를 높이며 주택 ‘보상교환판매’ 활동 등 정책 조치를 조직, 전개한다고 명확히 했다.

선불금 비중과 리를 방면에서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 선불금 비중이 20% 보다 낮지 않도록 조정하고 대출리를 하한선은 상응한 기한의 대출시장 우량 대출리률(LPR)에서 45개 포인트를 덜어낸 수치보다 낮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조정한 후의 5년 기한 이상 주택 대출리률의 하한선은 현재 3.7%이다.

통지는 다자녀 가정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한다고 제기, 북경시 호적 두 자녀 및 그 이상 다자녀 가정 이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개인 주택 대출에서 첫번째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인민넷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5환 안팎에 따라 회복, 5환내에서 구매하면 최저 선불금 비중을 35% 보다 낮지 않게 조정하고 대출리를 하한선을 해당 기간 대출시장 우량 대출리률(LPR)에서 5개 포인트를 덜어낸 수치보다 낮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조정한 후의 5년 기한 이상 주택 대출리률의 하한선은 현재 3.9%이다. 5환 밖에 위치한 경우 최저 선불금 비중은 30% 보다 낮지 말아야 하고 대출리를 하한선은 상응한 기간 대출시장 우량 대출리률(LPR)에서 25개 포인트를 덜어낸 수치보다 낮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조정한 후의 5년 기한 이상 주택 대출리률의 하한선은 현재 3.7%이다.

통지는 다자녀 가정 개선성 주택 수요를 지지한다고 제기, 북경시 호적 두 자녀 및 그 이상 다자녀 가정 이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개인 주택 대출에서 첫번째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인민넷